

전 남

장흥 우드랜드·소금집 치료효과 탁월

노인 60명 임상시험... 폐기능 등 좋아져

100ha에 걸쳐 40 ~ 50년생 아름다운 편백나무가 군락을 이룬 장흥 우드랜드의 소금집이 통합의학 치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3일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 6명이 장흥 우드랜드와 소금집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팀(팀장 이덕철 교수)은 65세 이상 노인 중

비교적 건강한 시험군 60명을 대상으로 우드랜드 편백숲 산책과 소금집 휴식 전후 자율심장계, 동맥경화도, 폐기능, 체질량지수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검사를 실시했다.

임상시험 결과 시험에 참석한 60명의 신체 상태가 편백 숲 산책과 소금집 휴식 후 놀랄 만큼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시험 결과는 앞으로 공인 학회지에 공식 발표할 계획

이다. 이번 시험을 계획한 연세대 이덕철 교수는 "전남에는 따뜻한 기후, 섬 음이온, 황토, 갯벌, 천일염 등 세계적인 자원을 갖고 있어 이를 통합 의학적 치료에 적용할 경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임상시험 사례와 과학적 효과분석을 통해 전남의 자원을 통합의학치료에 활용,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우산리 역불산 편백숲 우드

랜드에 문을 연 소금집은 사업비 56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1층에 전체면적 1836㎡ 규모로 건립되며 소금마사지방, 해독방, 단전 호흡방, 편백반신욕방 등을 갖췄다.

천일염용 소금과 체지방 및 독소배출, 성인병 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원적외선 방사소금, 편백나무 피톤치드를 이용한 강력한 살균작용 등을 통해 자연치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 천주교 옛 교구청 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지정 고시

목포 천주교 옛 교구청 건물이 등록문화재 제51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산정동 74의 1번지 교구청 건물(365㎡)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이 건물은 1937년 광주대학교 설립 이후 최초로 광주·전남지역(당시 제주지역 포함) 선교 거점 장소로 사용됐다.

정면 중앙부의 반원 아치와 필라스터(pilaster)로 장식된 현관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처마선 아래와 층간 사이에 수평 돌림띠로 장식하고 수직의 긴 창을 반복적으로 배치했다.

내부 목조 계단, 천장 석고 플라스터(plaster) 몰딩, 문 등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이곳은 1956년 교구청이 광주로 이전한 후 수녀원 목포분원, 성 골롬반 병원, 성신간호전문대학으로 사용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천주교 옛 교구청이 있는 옛 성 골롬반 병원 터를 복

원, 성지순례의 메카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4개소, 도지정 문화재 12개소, 등록문화재 7개소 등 총 23개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일본 관광객

갯벌치유 여행

신안 증도서 22~25일

신안 갯벌에서 '치유'를 주제로 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안 다도해 셋 갯벌연구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증도 갯벌에서 '일본 여행객과 함께하는 갯벌치유 여행(Getbol Healing Tour)'을 진행한다.

이번 여행에는 탐사르 네트워크 일본 공동 대표, 교수 등 8명의 일본 생태 관광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갯벌 체험 여행이 가능한지와 교통·숙박·식당·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내년부터 일본 관광객 지속적인 방문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증도 갯벌은 갯벌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가습지보전지역, 탐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전남 25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섬·숲·해변 3곳이 '치유(healing)의 섬'으로 지정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일본의 생태관광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회사, 그들이 참여하는 이번 여행은 '증도 갯벌 여행'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



엄마·아빠 골든벨 울려요

무안 해제초등학교(교장 김중채)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최근 '독서 골든벨'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소설 '레 미제라블'(장발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골든벨에서 흥정화(5학년) 학생의 어머니인 정귀임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강강술래 배우고 사물놀이 체험하고...

日 고교생·교사 26명, 장성고 방문

장성고등학교(교장 황의갑)가 자매결연교인 일본 아오모리현 쇼후주쿠 고등학교와 상호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일본 아오모리현 쇼후주쿠 고등학교는 학생 22명과 교사 4명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장성고 방문 교류연주회 및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15번째. 일본 쇼후주쿠고 학생들은 흡스테이를 하며 강강술래·사물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과 연주회, 김치 담그기 등을 체험했다.

15년간 교류성과를 보면 원어인을 활용한 영어교육과 아울러 장성고가 선택한 제2 외국어인 일본어 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해 전 반적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습득에 대한 의욕이 제고됐다.

또 양국 학생들은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으며 서신 교환을 하는 등 양국간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고 장현우(3학년) 학생회장은 "비록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학생들의 만남이 양국간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의갑 교장은 "미래는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화가 더욱 발전해 앞으로 미래에는 분쟁이 없는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이 됐으면 하면 바람이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이년까지 변제 문제 없다"

임성훈 나주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나주 미래산단 투자회사가 매입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시의회 정찬걸(민중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 "시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위텍이 발행한 30억원의 회사채를 미래산단과 관련된 민자투자자문회사인 K사가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장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천억의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업체가 매입

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위텍은 임 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회사채 매입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위텍이 채권발행을 하면서 K사로부터 설정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현재 채권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민자투자자문회사인 K사는 현재 나주 미래산단을 개발하고 있는 (주)고건산업개발과 부부가 운영하는 실질적 동일회사"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성훈 시장은 19일 의회에 참석해 "전환사채는 6개월 계약

만료 조건으로 발행한 것으로 지난 1월 27일 발행해 7월 27일 전에 원금과 이자까지 변제했다"며 "등기부등본상의 설정 해제는 회사 관계자의 실수로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임 시장은 이어 "현재 (주)위텍은 자본금 80억원에 연매출 100억원에 달하는 건설한 회사로 채권발행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6월 (주)고건산업개발로부터 2400억원을 유치해 2015년까지 1차로 57만평 규모의 나주 미래산단을 개발하기로 했지만 전남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못 받은 상태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정철원기자

내달 2~3일 백양사에서 아기단풍 축제

"올 가을 추억여행은 백양산 아기단풍과 함께 하세요!"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장성 백양단풍축제가 '가을단풍과 음악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11월 2~3일 이틀간 국립공원 백양산과 백양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성군 축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질적

변화를 모색해 소모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인 축제로 진행된다.

축제는 백양산 국가지와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가을단풍 음악회 ▲단풍 숲 거리공연 ▲지역문화 예술공연 ▲7080 콘서트 ▲퓨전 국악&거리악사 등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수석박물관 주무대와 일광초 소무대 주

변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무대 주변에서는 ▲단풍와 체험 ▲단풍사진 콘테스트 ▲단풍요정 포토존 등 단풍과 관련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도 마련해 축제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메인 거리에서는 단풍을 즐기려는 외부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장성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중점을 두는 등 내실 있게 축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2012전북방문의 해
VISIT JEONBUK 2012, KOREA

2012 Heungbu Festival

"우애 · 나눔 · 보은 · 행운"

제 20회 남원 흥부제

2012. 10. 27(토) ~ 28(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

개막식 축하공연("이것이 판소리다"), 남원농악경연대회, 창극흥부가(국립민속국악원), 흥부길걷기, 전국학생판소리대회, 독후감쓰기, 백일장, 흥부체험마당, 시조경창대회, 흥부프린지페스티벌, 연계행사(시민체육화합한마당, 남원예술제)

주최: 남원시 주관: 흥부제전위원회 후원: 국립민속국악원

